

“남의 목장 만삭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 부 진

한일사료 마케팅부 차장

작금에 들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야단들이다.

한나라 산업의 뿌리라는 제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경쟁국의 추월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각 분야마다 기술축적이 되어있지 못하고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업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도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수출이 잘 될리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낙농분야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결코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성 싶다.

송아지는 젖소의 기본

송아지를 잘 키우는 것은 그 송아지가 커서 장래 우유를 많이 생산토록 하기 위함이다. 어린시기에 기침, 설사등 병치레를 한다면 성장·발육이 충분할 수 없고 큰소가 되어서도 제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좁은 공간에서 운동도 못하고 자란 송아지는 골격이 충실하게 발달할 수 없을 것

이고 유선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후 4내지 10개월에 농후사료 위주로 사료급여를 하는 것은 과비를 초래해 성우가 되었을 때 우유생산능력을 크게 떨어 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낙농현실은 과연 어떤가?

당장 수익을 만들어내는 착유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2년후 우유를 ping ping 쏟아줄 송아지 한테는 지나치리만큼 무관심하다.

급여하는 사료도 벃짚과 배합사료가 전부인 것이 우리의 일반화된 실정이다. 이러한 급여관리하에서는 미네랄등 각종 영양소가 부족할 것이고 왕성하고 균형잡힌 발육은 기대할 수 없다.

공을 들이지 않는 닭은 높이 쌓을 수 없으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을 우리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한다.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육성우는 육성우나름대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키워야 훌륭한 성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송아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모아야 할 때이다.

조급한 마음이 문제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

1년, 2년을 기다리지 못한다. 금방 전쟁이 일어

나거나, 천지개벽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지금 낙농을 하는 사람들도 당장 목장을 걷어치우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의 목장중에는 송아지를 길러 노산우를 대체하겠다는 곳은 드물다.

초임만삭우의 매매가 성행하는 나라.

그 소가 어느정도의 능력인지도 모르고 그저 바로 송아지를 낳고 우유를搾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만삭우의 매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목장경영에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투기이며 요행일 수 밖에 없다. 그소가 심한 유방염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 파는 사람도 예상되는 낮은 우유생산 능력에다 "그 소가 송아지를 순산을 할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혈값에 처분하고 현금을 챙기는 것일지 모른다.

이것은 파는자와 사는자 쌍방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어둠속에서의 암거래 같은 것이다.

요전에 어느 축산잡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린 일이 있다.

"농장의 유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방이 낮은 소는 만삭을 시켜서 팔아 버리라"고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낙농업계 전체에 전혀 이상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래 번식에 활용하고 우유를搾 소는 송아지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육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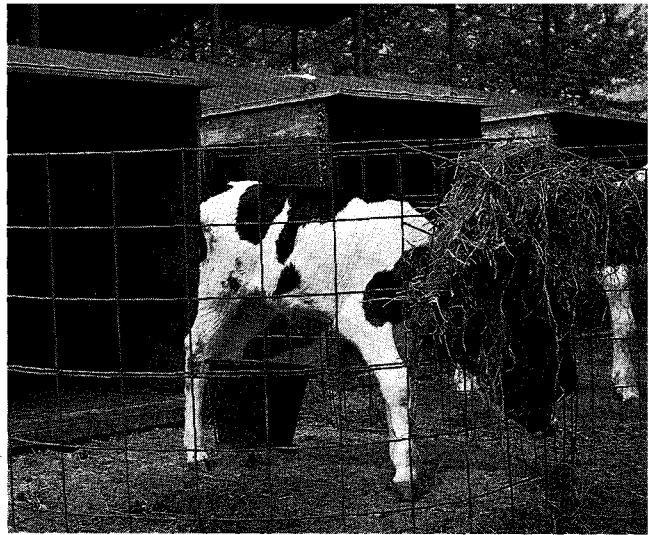
낙농도 전문화 시대로

우리의 제조업이 흔들리고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이유가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이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화 시대 즉 국제 경쟁력을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낙농도 전문화 시대로의 진입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 예로 일본처럼 성장단계별 전문사육 농장의 정착이 요청된다.

『초유떼기부터 분유떼기까지의 농장』 『분유떼기



송아지를 튼튼하게 키우는 일은 낙농의 기본이다.

부터 초임만삭까지의 농장』 비육우에 있어서도 『번식우 전문농장』 『육성우 전문농장 등』

그래서 OO도 OO군 OO면 OO농장에서는 그지역에서 분유떼기 송아지를 마음놓고 사올 수 있고, OO농장에서는 초임만삭우를 혈통증명서와 함께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사회가 추구하는 신뢰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낙농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벼농사 3천평에 고추등 밭농사 2천여평을 갖고 있으며 젖소는 10내지 20두를 부업으로 키우는 농가가 예상외로 많기 때문이다.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에는 아예 논밭에 나가 온종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사양관리나 철저한 개체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분들에게 "번식간격을 이렇게 단축시키십시오. 유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년센스일 뿐이다.

초임만삭우를 아무데서나 사면 안된다고 하면 요즘 시쳇말로 "괜찮아유-"다.

우리의 낙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분들이 농사를 포기하든가, 목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유값이 싸다고 불평하기 전에 전문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웃 일본의 낙농가들처럼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